



What's new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제 42 호 | 2020.02.26

딜로이트 안진, 새해 베트남 부동산 자문시장에 '출사표'

국내 빅 4 중 처음으로 부동산 서비스라인 현지 구축...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위한 교두보 될 것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2020년 1월부터 국내 빅 4 회계법인 가운데 처음으로 현지에서 베트남 부동산 자문시장 선점을 위한 서비스라인 구축에 돌입합니다. 베트남은 국내 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는 신흥시장으로, 딜로이트 안진의 진출을 계기로 베트남 시장에 관심있는 기업들의 베트남 부동산 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다양한 이슈를 안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재무자문 서비스 및 부동산 자문에서 큰 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노하우를 요구하는 시장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한 베트남은 그동안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법으로 인식됐던 증권법의 개정과 공기업 민영화 등의 현안 해결에 베트남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침체기를 겪은 후 2013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은 딜로이트 베트남과 함께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거래(transaction) 자문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갈 예정으로 이미 딜로이트 베트남과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은 인프라 및 에너지, 그리고 M&A 관련 서비스까지 서비스 영역을 다각화하고 사업 대상 지역 역시 동남아시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딜로이트 AP(아시아태평양)와 협력관계를 구축, 아시아 부동산 재무자문 서비스 리더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딜로이트그룹, '한·미·일 3국 메이저 퀸' LPGA 전인지 선수 공식 후원

적극적 사회봉사활동 딜로이트 공유가치와 부합...전 선수, "지역사회에 모범 되는 선수 될 것"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딜로이트 창립 175주년을 맞아 보다 적극적인 브랜드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LPGA 투어 멤버인 전인지 선수와 후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인지 선수는 1월 LPGA 투어 2020 시즌 첫 경기부터 딜로이트 로고를 부착하고 활약하고 있습니다.

전인지 선수는 2013년 KLPGA 무대에 데뷔한 후, 한·미·일 3개국 메이저 타이틀뿐만 아니라 3개국 내셔널 타이틀을 잇달아 획득함으로써 '메이저 퀸'이란 별명을 얻은 선수입니다. 특히, U.S. 여자오픈 사상 합계 272타라는 최저타수 기록과 남녀 통틀어 메이저대회 사상 최대 언더파 기록인 21 언더파를 2016년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달성한 바 있다.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전 선수의 최근 기량 향상에 힘입어 2020 시즌에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는 판단과, 평소 전 선수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이 딜로이트의 경영 가치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해 후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전 선수는 프로 골퍼로는 드물게 '랜캐스터 컨트리클럽 장학재단'을 설립해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이름이 되기도 한 랜캐스터 컨트리클럽은 전인지 선수가 2015년 첫 출전한 첫 LPGA 투어 U.S. 여자오픈에서 역전 우승을 일궈낸 곳으로, 뜻 깊은 곳을 추억하고 자신을 환대한 주민들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2017년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이러한 전인지 선수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사회를 보살피고 존중하는 딜로이트의 공유가치(Deloitte Shared Values) 및 딜로이트가 전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WorldClass)'와 접점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딜로이트그룹_2020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연구 조사 발표

인도·중국 소비자들 안전성 불신 2년 전보다 증가해 대조...전세계적으로는 '주춤'
전기차 구매 걸림돌은 충전 인프라 부족...한국 소비자, 휘발유 가격에 민감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딜로이트 글로벌의 '2020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연구(2020 Deloitte Global Automotive Consumer Study)'보고서를 인용, 자율주행 등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2 회째를 맞는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연구' 보고서는 딜로이트 글로벌이 매년 발표해 온 것으로, 이번 조사는 미국과 중국, 인도, 독일, 일본, 한국 등 주요 20 개국 3 만 5,000 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9 월과 10 월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세계 주요 국가 소비자들은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를 묻는 질문에 2년 전 조사 대비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 소비자들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2년 전보다 비용 지불 의사가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는데, 한국 소비자들의 경우 2017년 전체 응답자의 75%가 자율주행 기술에 지불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데 그쳤으나, 2020년에는 응답자의 89%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 중국은 93%, 인도는 92%의 소비자가 자율주행 기술에 비용 지불 의사가 있다고 답한 반면, 독일과 미국 소비자들은 각각 59%, 66%에 그쳐 대조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소비자들은 실제 금액 지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성, 연결성(Connectivity),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자율주행, 차세대 엔진 솔루션으로 구분된 첨단기술 카테고리별로 질문했을 때 적게는 37%에서 많게는 84%의 소비자들은 각 첨단기술을 구매하는데 500 달러 이상 쓰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과 일본 소비자들이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과 비용지불 의사가 높은 반면, 독일과 미국 소비자들은 첨단기술에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율주행차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항목에서도 소비자들은 국가별로 다른 인식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소비자 불신 정도가 2018년 54%에서 2019년 49%, 2020년에는 46%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역시 2018년에는 57%의 소비자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의문표를 던졌지만, 2020년에는 47%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 소비자들은 자율주행차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에서 답보상태를 보였는데 특히 인도와 중국의 소비자 불신도는 2019년 대비 각각 10%p 증가해 58%, 35%의 소비자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해까지만 해도 견고해 보였던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의 부상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계 소비자들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친환경 차량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58%의 소비자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차세대 파워트레인 자동차를 구입할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해 43%에서 무려 15%p 가 증가한 비율입니다. 지난해 71%, 63%의 소비자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고수하겠다고 답한 미국과 독일 소비자들도 올해 59%, 49%로 줄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비용절감으로 분석되는데, 소비자들은 휘발유 값이 높아질수록 전기차를 구매할 의향이 "훨씬 높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휘발유 값이 리터당 1,864 원일 때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는 소비자는 전체의 21%에 불과하지만, 2,983 원으로 될 때는 76%의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020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연구 조사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연구 조사 전문보기](#)

딜로이트 컨설팅, '지속가능발전목표란 무엇인가?' 출간

공공·사회·기업을 위한 SDGs 시대형 비즈니스 모델 제시...사회가치창출 선도기업으로 가는 방안 제안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ocial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활용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대한 해법을 담은 단행본 '지속가능발전목표란 무엇인가?'(진성복스)를 출간했습니다.

'UN 선정, 미래 경영의 17 가지 과제'라는 부제를 단 책에는 SDGs의 기본 개념부터, GE, 월마트, 유니레버 등 글로벌 기업들의 SDGs 성공 실천사례를 필두로 딜로이트 컨설팅 리더들이 제시하는 기업의 바람직한 경영목표 및 전략, 새로운 비즈니스 해법을 담았습니다.

세계 193 개국으로 구성된 UN에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사회과제 해결을 위해 설정된 목표인 SDGs는 공공·사회·기업(개인)의 세 부문에 걸쳐 널리 파급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과거 수십년에 걸쳐 글로벌 자본주의 속에서 구축된 현대 기업경영 모델의 근간을 뒤흔드는 변화에 대한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딜로이트 전문가들은 기업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점 변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춰 기업의 핵심역량을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안과 조언을 책 속에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배정희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부사장은 "최근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민은 지속가능한 사회와 기업의 공동 발전"이라며 "산업과 사회구조, 삶의 방식이 격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 하에 딜로이트의 경험과 지식을 민간과 공공부문 리더들과 나눠 새로운 미래 경영의 시작점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총 4 부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란 무엇인가?'는 SDGs 시대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1 부에 이어, 기업의 측면에서 바라본 SDGs 해독법,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변화, 경영모델 혁신전략 등 다양한 측면에서 SDGs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판에는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의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한국적 사회가치창출 선도기업으로 가는 비전을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딜로이트 글로벌 유통업 강자 2020' -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유통산업 발목 잡았다

Top250 중 유럽 88·미국 77 개사로 세력 과시...한국 '신세계', 면세점 성장으로 첫 진입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딜로이트 글로벌이 발간한 '딜로이트 글로벌 유통업 강자 2020(Global Powers of Retailing 2020)'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 Top250 유통기업들이 2018 회계연도 기준 4.74 조 달러(한화 약 5 천 6 백 조 원)의 매출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 회계 연도 총매출 4.4 조 달러(한화 약 5 천 2 백 조 원)에 비해 2 년 사이 약 3,400 억 달러(402 조 원) 증가한 것으로, 상위 Top10 기업 매출은 전년 대비 6.1% 성장해 전체 Top250 기업 평균 성장률인 4.1%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Top250 전체 매출의 32.2%가 Top10 유통기업들의 몫으로, 'Top10 집중도'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18 회계연도 Top250 의 매출 증가율은 예년 대비 가장 저조한 수준으로,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의 구매력 및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력이 약화된 것이 이유로 분석됩니다. 순이익률과 국제화 수준 역시 예년 대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품군별로 구분하면 Top250 유통기업 중 일용소비재(FMCG; Fast Moving Consumer Goods) 기업들이 136 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의 2018 회계연도 평균 매출은 기업당 232 억 달러(한화 약 27 조 5 천억 원)로, 글로벌 유통산업 전체 매출의 66.5%를 차지한 반면 일용소비재 산업의 특성상, 순이익률은 2%로 모든 상품 범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Top250 중 유럽 기업들이 88 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매출의 34.4%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77 개의 기업이 이름을 올리며 전체 매출의 44.8%를 이끌었고, 평균 매출 역시 276 억 달러(한화 약 32 조 6 천억 원)로 Top250 유통기업 평균 수익인 190 억(한화 약 22 조 5 천억 원) 달러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비키 잉(Vicky Eng) 딜로이트 글로벌 소매 및 유통산업 리더는 "최근 5 년 동안 개별 기업들의 실적은 큰 부침을 겪었지만 Top250 유통기업의 전체 실적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성장률, 순이익률, 그리고 국제화지수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업으로는 롯데쇼핑(59 위), 이마트(70 위), GS 리테일(144 위), 홈플러스(180 위), 신세계(226 위) 5 개사가 Top250 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신세계가 Top250 에 신규 진입했는데 보고서는 신세계가 큰 폭으로 성장한 가장 큰 요인으로 면세점 사업을 꼽았습니다. 서울과 인천공항에 문을 연 면세점을 필두로 백화점에서도 매출이 뛰었으며, 토탈 홈 퍼니싱 기업인 까사미아(Casa Mia) 인수가 특히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세계는 전년 대비 매출이 37.6% 증가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한 Fastest50 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Fastest50 에 선정된 한국 유통기업은 신세계와 GS 리테일이 유일합니다.

이번 보고서 결과와 관련해 정동섭 한국 딜로이트그룹 유통산업 리더는 "글로벌 유통산업을 이끌고 있는 상위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과거의 사업방식을 탈피해 구매, 제작, 판매, 운영, 마케팅, 재무 등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면서 실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내 유통기업들도 단편적인 기술과 솔루션의 적용을 넘어 기업의 체질 자체를 디지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딜로이트 글로벌 유통업 강자 2020(Global Powers of Retailing 2020)' 보고서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64,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